

**2020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          |  |      |  |    |  |
|----------|--|------|--|----|--|
| 지원학과(학부) |  | 수험번호 |  | 성명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마을은 1968년 철거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주지역으로 선정되어 인구가 급증하면서 철거민 동네, 못사는 동네 등으로 인식되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동네로 기억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희망세상’이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지역운동이 전개되었다. 복지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희망세상 활동 중에서 가시적 결과로 드러난 공간이 ㉠ **느티나무 도서관**이다. 도서관 건립 당시 주민들의 <벽돌 한 장 기금 모금 운동>은 전국적으로 감동을 주었고, 주민들의 자발적 역동성을 도서관으로 모이게 하는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지역 과제가 주민의 참여로 해결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민이 지역의 능동적 주체가 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이지만 동시에 주민들이 참여해 A 마을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역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거점센터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나) 미국의 산업이 발전하던 1910~1930년대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남부 농장지대에서 북부 산업도시로 대이동을 했다. 경제력이 없어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한 흑인들은 도심과 교외에 크고 작은 흑인 공동체를 형성했다. 초기에는 흑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모여 살자는 의미가 강했고 그 안에서 흑인들은 나름의 문화적 전통을 만들고 삶의 토대를 꾸려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노력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흑인에 대한 공간적 격리는 점점 구조화됐다. 시카고의 경우, 「짐 크로우 법(Jim Crow laws)」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한 흑인이더라도 백인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집을 사거나 임대차를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흑인들은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돼 있던 유럽의 게토(ghetto)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1965년 「짐 크로우 법」은 폐기됐지만, 이들은 게토라는 격리된 공간을 통해 흑인 빈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영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 **흑인 게토**는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며 범죄가 판을 치는 ‘버려진 섬’이 되었다. 이곳 고등학생의 70%가 학교를 중퇴하고 30대의 20%가 감옥에 다녀왔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 준다.

(다) 사람은 공간에서 어떻게 자리하느냐에 따라 몸과 행위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까지 달라지는 상황적 존재이다. 그래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처럼 공간에 대해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인식과 그에 관한 보장이 일찍부터 진전되어왔다. 그러나 모든 공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개인의 집도 순전히 개인의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까닭에 기본적으로 일정 지역의 공간은 해당 지역 집단 전체의 민주적인 논의와 결정에 따라 사회 정의와 윤리가

(뒷면에 계속)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간주권**에 대한 논의는 공간의 공공성, 인간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이 민주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대안적인 삶의 정치가 배태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 공간주권은 ‘주권’이기에 누구에게 요구하여 얻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말하고 행사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이 보편적 인권에 근거해 균등하게 접근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

(라) 아렌트가 말한 공공성은 ‘현상의 공간(space of appearance)’과 관련된다. 현상의 공간은 사람들이 행위와 논의에 의해 서로 관계하는 지점에서 창출되는 공간이다. 현상의 공간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잠재적으로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현상의 공간 안에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표상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에 살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구(who)’와 ‘무엇(what)’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란, 예를 들면 남성·중년·한국인 등으로 그려지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다.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묘사될 때, 그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서로를 ‘무엇’으로 치우하는 표상의 공간에 살고 있다. 그런데 표상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라는 표상, 장애인이라는 표상, 노숙자라는 표상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 표상은 부정적 정체성을 각인 받은 사람들의 심신에 상처를 주는 폭력의 명백한 원천이다. 이와 달리 사람들은 현상의 공간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unique) 존재로 드러난다. 또한 현상의 공간은 타자를 유용성 여부로 판단하는 공간이 아니다. 공리주의적 사고는 쓸모없는 자를 즉시 배제하는 것이 정답이라 간주한다. 그러나 현상의 공간을 만들려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반성해야 한다.

(마) 2011년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 많은 시민 단체들이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퇴거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강제퇴거가 아니라 노숙금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매일 새벽 1시경부터 청소를 위해 문을 폐쇄했었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는 역사(驛舍)를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해외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홈리스(homeless)를 몰아내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벤치나 화장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쇄했다.

1-1. 제시문 (다)의 **공간주권**의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 **느티나무 도서관**, (나)의 ㉡ **흑인 계토가** 갖는 성격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다)와 (라)의 논지를 제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제시문 (마)의 ㉮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632년 피렌체에서 갈릴레이의 『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이하 『대화』)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두 명의 철학자와 한 명의 시민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해서 나흘 동안 토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태양의 흑점,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 금성의 차고 기움, 목성의 위성들을 관찰했다. 그는 “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쓰아올린 화살은 제자리에 떨어지는가?”, “왜 지구가 운동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물리학적인 논변을 제기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밀물과 썰물이었다. 갈릴레이의 조수이론은 수학의 기하학을 사용해서 경사면의 운동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추상화하는 근대 물리학의 전통을 세웠다.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1633년 심각한 이단 혐의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종신 가택연금에 처해지고 『대화』는 금서가 되었다.

(나) 1687년 출간된 뉴턴의 명저 『프린키피아』의 원래 제목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였다. 이 책은 케플러의 법칙 중 왜 행성이 타원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증명으로부터 시작한다. 뉴턴은 서문에서 자신의 방법론이 자연 현상에서 수학적 형태로 표현된 힘(force)을 발견하고 이 힘을 이용해서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턴에게 신은 한 번 우주의 태엽을 감은 뒤 방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운행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존재였다. 우주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만유인력은 신의 섭리가 작동하는 원리에 다름 아니었다. 태양계와 같은 조화로운 우주는 신의 섭리가 충만한 공간으로서 자연철학을 통해 우주에서 신의 계획을 이해하면 인간의 세계에서 관찰되는 신의 섭리 역시 알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뉴턴과 그의 제자들에게 자연철학은 올바른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과학(특히 물리학)은 신학과 철학을 제치고 지식의 표본이 되었고, 자연과학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상식이 되었다.

(다) 다윈은 1831년부터 영국 해군 조사선 비글호를 타고 5년 동안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등지를 여행하면서 동·식물을 채집하고 조사하여 18권의 공책에 꼼꼼히 기록했다. 특히 4주 동안의 갈라파고스 군도 탐험은 다양한 종(種)들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항해의 절정이었다. 다윈은 채집된 동·식물의 자료를 통해서 종들이 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계통도를 그리면서 자연선택이라는 생각을 다듬어 나갔다. 맬서스의 경제학 저서 『인구론』을 읽고 생존 경쟁 개념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윈은 1859년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관하여』(이하 『종의 기원』)를 출간하면서 자신의 혁명적 이론을 세상에 알렸다. 그 당시 생명이 진화한다는 주장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종의 기원』의 독창성은 생물의 진화가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며, 그 결과 생명이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 진화한다는 사실을 밝혀준 데 있다. 철학자 데넷은 다윈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보다 인류 역사상 더 뛰어난 사상가라고 평가했다.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의미와 목적이 없는 물질 영역을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설계가 있는 생물 영역과 통합했기 때문이다. 다윈의 자연선택론은 생물학의 영역에서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고 다윈의학, 진화철학, 진화경제학, 진화심리학 등의 새로운 학문 종들이 등장하는 데 기여했다.

(라) 지식은 16세기를 기점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중세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학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르네상스의 상당 기간에도 당시의 전형적인 학자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전문가다운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러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르네상스인이라고 부른다. …(중략)… 이른바 ㉠ 통섭(統攝, consilience)이란 지식의 통일성(unity of knowledge)을 의미한다. 이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통합되어 있기에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리하면 그것들만의 고유한 존재 이유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하며 모든 과학은 개념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뒷면에 계속)

(마) 제들마이어에 따르면 **현대예술**은 일종의 이상숭배이다. 인간이란 최고의 신적 존재를 향한 초월성의 체험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믿음을 거절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초월성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인간은 신을 부인할 자유를 얻었지만, 그 때문에 자신의 세계를 다른 그 무엇을 동원하여 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직면했다. 신에 대한 믿음의 자리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특정한 무엇 - 사랑, 자연, 예술, 과학기술, 민족국가 등 - 에 대한 믿음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것들에 절대자의 모든 힘과 존엄성을 부여했다. 이것이 이상 형성의 과정이다. 현대예술은 스스로 이상을 만들어나가며 자신이 이상이 되었다.

(바) 이름 없는 용사의 비석에 자신의 경의를 표하는 의식(儀式)은 근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앤더슨은 민족주의자의 이러한 의식이 죽음이나 불멸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신에 대한 종교적 상상과 강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종교는 우주 안에서의 인간, 종(種)으로서의 인간, 삶의 우연성과 숙명성(예를 들면 출생, 질병, 노화, 죽음 등) 그리고 세대를 잇는 연속성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계몽주의와 합리적 세속주의의 등장으로 서유럽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적 사고는 황혼기를 맞고 있었고 **민족주의**가 기존의 종교적인 관심들을 대체하게 되었다. 앤더슨은 민족주의가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더 큰 문화체계와 결합함으로써 그리고 그 문화체계를 잠식함으로써 탄생한 것이라고 본다. 신성한 종교적 언어들, 예를 들면 라틴어는 지방어였던 개별 민족의 언어로 점차 대체되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이를 촉진시켰다. 합스부르크와 같은 종교적 제국의 거대한 영토는 해체되고 새로운 근대 민족국가가 우후죽순으로 탄생했다. 시간의 관념은 동질적이고 공허하며 장구하게 움직이는 종교적 시간으로부터 민족국가 공동체의 역사적 시간으로 대체되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숙명성은 신으로부터 이제 민족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2-1. 제시문 (가)의 **갈릴레이**, (나)의 **뉴턴**, (다)의 **다윈**이 수행한 제시문 (라)의 ㉠ **통설**의 방식에 대하여 각각 서술하십시오. (200자±20자) [10점]

2-2. 제시문 (나)의 **뉴턴**의 **만유인력**, (마)의 **현대예술**, (바)의 **민족주의**의 의미를 비교 설명하십시오. (300자 ±20자) [20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증오는 증오로써 맞서면 안 된다. 증오에 대처하려면 증오의 유혹을 뿌리치는 수밖에 없다. 증오로써 증오에 맞서는 사람은 이미 자기도 따라 변하도록 허용한 셈이며 증오하는 자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 것이다. 증오에는 증오하는 자에게 없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관찰과 엄밀한 구별과 자기성찰로써 대응해야 한다. 그러려면 증오를 이루는 성분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해체해야 하고, 강렬하고 발작적인 감정으로서의 증오를 그 이데올로기적 전제들로부터 분리해 어떠한 역사적, 지역적,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해 작동하고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별것 아닌 듯 여길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광신적인 이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 **증오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과 증오가 날릴 수 있게 하는 구조, 증오가 작동하는 기제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증오에 동조하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잃게 할 수만 있어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고방식과 관점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증오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경솔한 순진함이나 냉소주의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제는 조용하게 평화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혐오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나) 두려움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한다는 점에서 두려움은 유용하고 실로 필요한 것이다. 두려움의 자극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특히 죽음과 폭력, 신체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방어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러모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뺨의 생김새에 대한 두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소음, 또는 사람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생기는 두려움은 유용할 수 있지만 악용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연상을 통해 문화적으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보이는 집단들 그리고 교활하고 사악해 보이는 집단들을 두려워하도록 학습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고정관념들은 소수자 집단을 악마화하고 증오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다)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민자를 증오하거나 무슬림을 악마화하거나 모습이나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극도로 기피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모든 확신이나 감정을 정당한 걱정으로 위장한다. 그러나 걱정이란 외피에 감싸인 증오가 권력으로부터 주변화되어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된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나 배출구가 아닌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여러 곳에서 혐오발언과 증오와 폭력으로 터져 나오는 그 에너지들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를 각각의 집단들도 자기 비판적으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걱정하는 시민들: 독일에서 난민 유입과 포용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세력이 스스로 일컫는 말.

(라) 언어의 수행적(performative)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모든 발화(發話)는 발화와 결부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에어컨을 오래 켜둔 방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에어컨을 끄자는 요청을 하기 위해 “춥지 않아요?”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때 수행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 말은 ‘당신이 춥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을 끄자.’라는 발화자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처럼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발화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한국에서 ‘여보’라는 발화는 통상 다른 사람을 불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말을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며 한국인들을 희화화하기 위해 ‘여보’라는 말을 발화하곤 했다. 이러한 방식의 발화 행위가 일반화되면서 한국어 ‘여보’를 어원으로 하는 ‘요보’라는 일본식 표현은 일종의 멸칭(蔑稱)\*으로서 대부분의 발화 상황에서 한국인들을 비하하여 지칭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멸칭(蔑稱): 상대를 경멸하여 부르는 말.

(뒷면에 계속)

(마) 언젠가 명동에 다녀온 그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친절한 거라고? 웃기는 소리 마.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지. 너도 얼굴만 좀 하얗다면 미국 사람처럼 보일 텐데…….”

그 뒤로 나는 저녁마다 물에 ㉠ **탈색제** 한 알을 풀어 세수했고 저녁이면 내가 얼마나 하얗게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비비충을 새로 산 남자애들의 첫번째 표적이 되지 않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왕따가 되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세숫대야의 물을 거칠게 쏟아버렸다. 고개를 들어 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탈색제가 든 비닐봉지를 수돗가에 내동댕이쳤다. 나는 뒷뒷미를 잡힌 채 방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종아리를 맞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 냄새를 풍기며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누크’ 베이비 로션을 꺼냈다. 그러고는 붉은 실핏줄이 보일 만큼 껍질이 벗겨진 내 얼굴에 로션을 잔뜩 발라 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으로 뺨을 아프도록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더니 잠들기 직전까지 흐느꼈다. 가끔 뜻을 알 수 없는 네팔 말을, 몹시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바) 본래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주목하고 장려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뿌리를 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실은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 다문화 자녀, 다문화 학생 등의 용어가 남발되면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본래의 뜻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일반적인 한국인과 구별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문화를 ‘문화’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 ‘인종’을 중심으로 접근하며 우리와 다른 이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문화의 공존이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타자(他者)들이 한국의 국가적·민족적·인종적 동일성에 동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밑바탕에는 ‘다문화’로 지칭되는 이들이 위험하다거나, 이들이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오염시키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결국 다문화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배경 가족들을 구분하여 부르는 말로 바뀌었으며 본래의 문제의식은 훼손되고 말았다. 당사자들에게 ‘다문화’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 **주홍글씨**가 되고 만 것이다.

3-1. 제시문 (나)와 (다)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 **중오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근원**을 찾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3-2. 제시문 (마)의 ㉠ **탈색제**가 상징하는 의미를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 **주홍글씨**가 상징하는 의미를 제시문 (다)와 (라)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350자±20자) [25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